

오늘도 V 땀방울... 지옥훈련도 즐겨워

예비역 박정태·김주형 주전 꺾차기 무한 경쟁 루키 윤정우·홍건희 '1군 잔류' 유쾌한 도전

KIA 日 전문캠프를 가다

미야자키=김여울 기자



일본에 캠프를 차린 KIA 타이거즈가 2011시즌을 앞두고 강경군을 이어가고 있다. 아직부터 해가 질 때까지 땀 흘려 훈련이 전개되고 있지만 '뚝한 훈련' 마저 즐거운 이들이 있다. 오랜만에 그라운드에 돌아온 예비역과 프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신인들이 그 주인공이다.

좌완 박정태와 내야수 김주형은 지난 2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오랜만에 스프링캠프에 참가하고 있다. 특히 상무에서 운동을 계속했던 김주형에 비해 박정태는 공익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라운드를 밟는 기분이 낫다.

박정태는 "고양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모교인 부산고를 찾아 틈틈이 운동을 하기는 했지만 늘 그라운드라 그리웠다"며 "스프링캠프에서 공을 던지고 훈련을 하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힘든다는 생각을 할 틈이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공을 다듬고 있는 박정태

는 점차 기량이 올라오면서 올 시즌 좌완 볼펜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입대전 87경기에 등판했던 박정태는 연습경기에서 최고 구속 145km를 찍는 등 좌완 거름에 시달리는 볼펜에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거포 김주형도 '만년 유망주'라는 타이틀을 벗기 위해 예전과 다른 집중력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국가대표 3루수 이범호의 등장으로 자리 싸움이 더욱 치열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게 김주형의 얘기다.

김주형은 "보상선수로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하고 임지가 좁아졌다는 생각에 잠시 흔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더 이상 유망주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첫 스프링캠프에 참가하고 있는 외야수 윤정우와 투수 홍건희의 하루도 특별하다. 쟁쟁한 선배들과 아마시절과는 다른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두 투수는 무력투쟁 자

라고 있다.

광주일보와 원광대를 졸업한 대졸 투수 윤정우는 "화창 시절 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운동량도 많고 힘든 점도 있다. 하지만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첫 스프링캠프를 평가했다.

공·수에서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윤정우는 188cm의 큰 키를 앞세운 빠른 발로 주목을 받고 있다.

화순고 출신의 홍건희는 캠프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유망주 중 한 명이다. 조범천 감독이 '필살부'를 찍었다'라고 공언할

정도로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유연한 투구 폼으로 '제 2의 윤석민'으로 통하는 홍건희는 자체 홈백전과 연습경기에 등판하며 훈련을 받고 있다.

선수단 막내로 심부름까지 도맡고 있지만 늘 밝은 표정으로 선배들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있다.

홍건희는 "운동을 할 때는 힘든다는 생각이 안 든다. 속수에 가서야 스프링캠프에 온 게 실감도 나고 녹초가 된다. 하지만 몸을 키워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웃었다.

/ wool@kwangju.co.kr

6강티켓 넘보지 마!

이번주 옥석가리기... LG·SK 치열한 순위싸움

2010-2011 프로농구

프로농구가 5라운드 막바지로 치닫하는 가운데 선두 싸움 못지않게 6위 다툼 또한 첨예하다.

6위 창원 LG(20승23패)와 7위 서울 SK(18승25패)의 격차는 꾸준히 2경기 차 안팎으로 유지돼 이번 주에도 양팀 간 경쟁이 불꽃을 뿜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시즌엔 티켓의 마지막 선인 '6등 자리'를 놓고 양팀은 이번 주에 3경기씩 치른다.

당장 맞대결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양팀 모두 쉽지 않은 3연전이다.

이번 주 경기 결과에 따라 6강 싸움은 한층 더 치열해질 수도, 6위 자리의 주인이 일찌감치 '내정'될 수도 있다.

SK보다는 LG의 분위기가 조금 나은 편이다.

LG는 22일 5위 서울 삼성과 홈 경기를 치르고 주말에 울산 모비스, 전주 KCC와 원정 2연전을 벌인다.

LG는 지난 20일 경기에서 선두 부산 KT를 13점 차로 격파하며 한껏 기세를 올린 데다, 삼성과 모비스가 최근 연패에 빠져 풀이 죽어 있는 상대라 내친 김에 5위까지 도약할 수 있다는 각오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 2승3패로 다소 열세인 KCC와의 경기에서 패한다 하더라도 이번 주에 2승1패의 성적표만 쓴다면 6위 자리의 문 만큼은 걸어 잠글 수 있다.

반면 SK는 22일 2위 인천 전자랜드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4위 원주 동부와의 2연전을 펼친다. 일단 전자랜드 전부터 SK로선 엄청난 부담이다. 전자랜드는 최근 4연승으로 1위 KT를 1경기 차로 따라붙어 그 기세를 누르기 쉽지는 않을 뿐더러 올 시즌 4번 맞붙어 모두 패배할 정도로 SK의 '천적'으로 거듭났다.

동부 역시 지난 주말 안양 인삼공사에 대타를 잡혀 7연승 꿈이 수포가 됐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김주성이 지지치 않는 체력으로 끝말에서 꾸준히 득점을 올리고 있어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상대전적에서도 1승3패로 열세에 처해 있는 만큼 위축되는 것도 사실이다.

SK로선 홈 3연전인 만큼 안방 팬의 일방적인 응원이나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언덕으로 보인다.

한편, 선두 자리는 당분간 KT의 독차지가 될 공산이 커 보인다.

KT는 이번 주에 예정된 3경기에서 하위권 팀인 대구 오리온스와 인삼공사와 만난다. "골재" 오리온스가 대타를 붙여 5위까지 도약할 수 있다는 각오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 2승3패로 다소 열세인 KCC와의 경기에서 패한다 하더라도 이번 주에 2승1패의 성적표만 쓴다면 6위 자리의 문 만큼은 걸어 잠글 수 있다.

연필뉴스

투수들 방망이 든 까닭은?

하체 강화·밸런스 훈련... 엉성한 포즈 전향장 웃음꽃 선사도



"배지리그식 타격이예요." 마운드를 책임지고 있는 투수들에게는 피칭훈련이 하루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컨디션에 따라 볼펜에서 150개가 넘는 공을 뿌리기도 하고 타자들을 상대로 공을 점점까지도 한다.

클러브를 뚫고 나가서 뛰는 투수들이지만 배트도 이들에게는 익숙한 장비 중 하나다.

스프링캠프에서 투수라고 공만 던지는 것은 아니다. 매일같이 러닝과 피칭 등 기본 훈련을 소화하는 투수들은 2인1조를 이뤄 티베팅 훈련도 한다. 하체 강화 훈련의 일부로 밸런스를 잡는데도 도움이 된다.

피칭 훈련 시간에는 고도의 집중력으로 공을 던지거나 훈련장에 비장한 적막감이 나돌지만 티베팅을 하는 시간만큼은 웃음꽃이 만발한다.

어색한 포즈로 공을 때리다 보니 주변에서 훈련을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웃음이 터진다.

박러거 출신의 서재용은 골프스윙에 가까운 엉성한 모습으로 배팅을 하면서도 '배지리그식 타격'이라고 큰 소리를 친다. 알고 보면 서재용은 타자로 미국에 진출했던 선수다. 1994년 무등기에서는 6타수 4안타 0.667의 타율로 초대 타격왕에 등극하기도 했다.

마무리 유동훈도 아마 4번타자 출신이다.

장초고 재학시절 4번 타자로 맹활약했다는 유동훈은 "고교 특급 투수였던 주영광을 상대로 훈련도 때려냈었다"며 자신의 타자 시절을 소개하기도 했다.

투수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타자'는 최고 참이대진이다. 프로 입단 때부터 던지는 능

력만큼이나 때리는 능력에서도 일가견을 보였던 이대진은 한때 부상으로 타자로 전향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투수로 돌아와야 했다.

이대진은 가장 안정된 자세로 공을 때려 내며 '역시 이대진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검도회 최용훈 회장 체육상 공로부문 표창

광주시검도회 최용훈(KCTV 광주방송 대표이사·사진) 회장은 22일 대 한체육로부터 체육상 공로부문 표창을 받는다.

최 회장은 검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광주 검도 선수단의 2010 전국체육대회 종합 1위, 전국 사·도대학령군대회 3연패(2006~2008), 2008전국소년체전 중등부 우승을 이끄는 등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주 새야구장 아이디어 공모 최우수상에 김남근씨

광주시는 무등경기장 부지에 들어설 새 야구장 건립과 관련해 시민 아이디어를 공



모한 결과, 수상자 7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김남근(장성)씨의 '빛돌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야구장 건설', 우수상에는 이명희(경북 김천)씨의 '관중을 위한 관람석 배치'와 이도홍(함흥)씨의 '기존 성화대를 활용한 명소화'가 각각 선정됐다. 또, 장려상에는 양덕승(남구 진월동)씨의 '신스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설계', 권다운(서구 선충동)씨의 '야구장 특색을 살린 버스정류장 건설', 주하미(북구 중흥동)씨의 '스마트폰 애플을 활용한 탁아소 내 어린이 활용상황 실시간 확인' 등이 각각 선정됐다. 특별상 수상자 36건의 아이디어를 낸 이기동(북구 문흥동)씨가 수상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415명이 710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상자의 아이디어는 물론 접수된 아이디어 가운데 실현 가능한 제안들은 야구장 건립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주인 되는 야구장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12층(법원 앞에서 70m 변화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근린시설/월동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소재지	대지면적	경매가	최저가	소재지	대지면적	경매가	최저가	소재지	대지면적	경매가	최저가	소재지	대지면적	경매가	최저가
당양동	대450,214,989	64,927천	11억9천	당양동	대450,214,989	64,927천	11억9천	당양동	대450,214,989	64,927천	11억9천	당양동	대450,214,989	64,927천	11억9천

병원, 교회, 사옥, 모델 상가 등 원하시는 부동산을 접수해 주시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드립니다. ■ 상담 및 접수 010-7570-7525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경매전문가(실무)과정」 1학기(15주) 수강생모집 2011년 2월 25일까지 마감
·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실무교육만 50명 · 상담 및 서류접수 236-3400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신문지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 서구 평안동 토지306평 건물230평 2층건물
· 광안동 토지100평 건물100평 지하1층
· 함평군 월내면 토지1000평 건물400평
· 나주시 세지면 토지700평 건물180평
· 김강기 1억9천만
· 북구 동림동 토지69평 건물120평
· 1층상가 2-3층 다가구주택 2억 4천만
· 담양군 대진면 토지380평 건물150평
· 김강기 3억5천만, 최저가 1억9천만
· 장성군 삼서면 대지120평 건물57평
· 김강기 9천만, 최저가 5천만
· 북구 두임동 대지1472.273 63평형 1층
· 김강기 1억9천만, 최저가 8천5백만

▶이외 상담물건, 산토지 다수보유, 소액투자상당
광주 서구 마락동 도시개발공사 부근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목포 옥암동 사우나(2-3층) 4층 빌딩대매
▶대지(중상상선) : 210평
▶건물(4층) : 470평(2007년신)
▶매매가격 : 23억(대출 14억 포함)

고흥군 금산면 토지매매
▶계획관리지역 : 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접)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대 지 : 1500평(6차선 도로접) 1700평
▶지연면적 : 700평 ▶일반공업지역 : 800평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토지매매
▶대 지 : 6500평 @1200평
▶준주거지역(동림2지구 건내면)
▶건 물 : 6상가 30평, 창고280평 @상가 200평 공장200평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광안동 일진동 토지매매
▶대 지 : 2000평(생산녹지지역)
▶6차선 도로변(공장, 물류창고, 차고지 등)
▶매매가격 : 17억(건물 600평 포함)

문의 : ☎ 016-644-4265, FAX 523-8558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 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 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나주 I.C 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011-620-3960 ☎ 062-381-6000
(삼우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 (FAX) 223-1772 ☎ 011-602-2532
(광주광역시 남동구 노안면 오정리1리1번지)

대인동삼일부동산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고 싶으신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 시내내권 및 시외소문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시찰분과 연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FAX) 223-1772 ☎ 011-602-2532
(광주광역시 남동구 노안면 오정리1리1번지)